|  |  |
| --- | --- |
| **참여자** | 박순렬, 박준현, 김민지, 이한솔, 조영래 |
| **회의 일시** | 2018년 5월 1일 (월) 12:30 |
| **회의 장소** | 공대9호관 415호 |

|  |  |
| --- | --- |
| **회의 안건** | **지난 회의 내용 복기 및 정리, 프로젝트 방향 논의, SRS 논의,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, 차후 일정 논의** |
| **회의 내용** | * 지난 회의 내용 복기, 정리 * 지난 시간의 proposal 기반과 회의록을 토대로 회의한 내용을 재검토 * 구체적으로 헌혈증서 기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및 웹 서비스 제작으로 협의 완료 * 프로젝트 방향 논의 * 프로젝트 관리론인 스크럼을 적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 및 요구사항을 추가논의 * 애자일 방법론을 위하여 비주얼 스튜디오 팀서비스나 github, 트렐의 사용을 고려 * 다이어그램 작성을 위해 draw.io를 이용 고려 * 프로젝트 관련 툴을 사용해보고 프로젝트 시 이용할 툴을 결정하기로함 * 기존의 헌혈 어플이 존재하므로 요구사항 및 프로젝트 방향을 재검토함 * 개인 헌혈확인 및 정보제공에 대한 요구사항 고려 * 증서번호가 허위인지 체크하는 기능에 대한 여부 고려 * 통신 인터페이스 고려 * 요구사항 도출 * 기능 요구사항으로 크게 4가지를 선정  1. 헌혈증서 등록/관리/삭제 2. 헌혈증서 기부 3. 기부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4. 헌혈관련 부가 서비스  * SRS 논의 * 헌혈증서 기증을 개인대개인 혹은 개인대기관으로 할지 방향 결정 * User의 scope(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)와 기능(User는 “register, manage, CRUD”를 가질지 혹은 “register, manage”만 가질지) 고려 * 헌혈 증서에 대한 유효성 고려 |
| **회의 결론** | * 기존의 헌혈 어플리케이션이 비슷한 기능을 가진 관계로 이와 차별적인 기능 위주인 헌혈증서 기증 플랫폼 시스템으로 결정 * 헌혈에 대한 등급제는 기존에 있음으로 기증횟수를 등급제로 나눔 * 이후 마일리지로 기프트콘을 받는 기능을 넣기로 함 * 애자일 방법론(Scrum)을 이용하여 프로젝트 진행 * 비주얼 스튜디오 팀서비스를 이용하여 스크럼을 적용하기로 함 * 개발을 진행하며 프로젝트 주제나 아이디어에 대한 추가논의 하기로 함 * SRS 작성 논의 * 다이어그램 작성을 위해 draw.io를 이용 * 헌혈증서 기증을 개인대개인, 개인대기관 모두로 가능하기로 결정 * 개인 헌혈확인 기능은 제외하기로 함 * 통신은 기관<->서버, 어플<->서버로 결정 * 증서의 유효성은 증서를 등록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관리자가 유효성 체크해서 직접 입력해주는 걸로 결정 * 증서번호가 허위인지 체크하기위해 시스템 내에서 임의로 씀을 체크만 하기로 결정(후에 기관에 알려줌) * User scope에 대하여 사용자<->사용자, 사용자->기관, 기관->서버 이 방향으로만 전달이 가능하기로 함 * Actor의 구성은 사용자, 기관(병원), 관리서버로 함 * User는 “register, manage, CRUD”를 가지기로 결정 |
| **차기 계획** | * 5월 7일 19시 공대 9호관 415호 회의 협의 * SRS 표준, 이전사례 참고 등을 통해 SRS 작성 수행 예정 * SRS작성을 하면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설계도 병행 * SRS작성과 개발 시의 역할에 대한 역할 분담 예정 |
| **비고** | * Use case diagram 결정에 의견 합의가 힘들었음 * 스케쥴 조정이 힘들었음 * 기존에 있는 어플이 우리 기능과 비슷하여 요구사항이 축소됨 * 헌혈증서의 유효성관리에서 요구사항 수정 발생 * 회의 시간활용의 비효율성 |